

Interview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 기다림의 길이만큼 더욱 깊어질 감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에스더 유와 서울시향의 협연이 두 번이나 취소되었을 때, 이들의 협연을 기다렸던 많은 청중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프로그램이 에스더 유와 데뷔 앨범 레퍼토리인 글라주노프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2주 자가 격리를 마친 뒤 취소 통보를 받은 연주자 본인은 물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낙담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과정 끝에 성사되는 만큼, 세 번째 시도인 이번 만남은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듯하다. SPO는 두 번째 자가격리를 마친 에스더 유와 대화를 나눴다.

글 김원철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팀·음악 칼럼니스트



**지금 한국 어디에서 지내시나요? 자가 격리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자가 격리를 했는데, 첫 자가 격리 때는 어떤 일을 겪을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주자의 삶이란 게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일이라 집에 머무는 시간을 꽤 즐겼던 편입니다. 지난 몇 달은 연주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여행 없이 오랫동안 한 도시에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자가 격리를 스스로를 다독이고 조용히 생각에 빠져드는 기회로, 어떤 외부의 방해 없이 일에 전념하고, 요리 실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가 격리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웃음). 요리를 좋아해서 자가격리 기간에도 충분히 잘 먹은 느낌이지만, 가끔 식당으로 달려가 갓 만들어 낸 음식, 가령 생선회나 뜨끈한 칼국수 같은 걸 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시향과 협연하는 공연이 두 번이나 취소됐고, 그래서 이번이 첫 협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서울시향 데뷔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새롭게 잡힌 일정으로 펼쳐질 서울시향과의 연주는 어쩔 수 없었던 이전의 일들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고 고마운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무대에 올라, 서로 그리고 청중과 함께 음악을 공유하게 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음반을 두 개나 녹음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궁금합니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는 열다섯 살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데뷔 앨범을 이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릴 적부터 존경하던 음악가, 마에스트로 아시케나지가 지휘자로서, 또 멘토로서 저와 함께 녹음한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2집 차이콥스키 앨범은 차이콥스키 협주곡으로 여러 나라를 함께 투어하고 나서 녹음

**‘프린스 오블렌스키’는 저의 음악적 발전에 큰 영역을 차지했고 지속적인 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로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아시케나지가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를 통해 작곡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녹음과 음반 발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협연하실 글라주노프 협주곡은 차이콥스키·시벨리우스·브람스 협주곡만큼 인기 있는 곡은 아닌데요. 이 곡의 매력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주자와 청취자에게 전할 것이 너무도 많은 곡이라서 저는 이 협주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늘 얘기합니다. 연주 시간은 짧지만 강렬한 울림, 독특한 매력, 넘치는 힘, 서정적 정서, 환상적 부분, 민속적 요소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넘쳐도록 한 곡에 담겨 있습니다. 이 협주곡의 독특한 러시아 민속 요소들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러시아의 전통춤,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성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에 입장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주하다 보면 이 작품이 그려내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게 무척 즐겁습니다.

**쓰시는 악기가 1704년산 ‘프린스 오블렌스키’ 스트라디바리우스 맞나요? 에스터 유 선생님의 연주 스타일이 이 악기와 얼마만큼 관련 있을까요?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연주 스타일에 이 악기가 잘 맞는지, 혹시 악기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악기를 사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악기로 연주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악기는 저의 음악적 발전에 큰 영역을 차지했고 지속적인 저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제 연주 방식이 변화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 악기도 저의 연주를 따라 변신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프린스 오블렌스키는 제 기분과 연주 중 벌어지는 미묘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악기는 끊임없이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 개선하라고 가르치면서 더 나은 음악가

가 되라고 밀어줍니다.

**원헌 음대와 퀸엘라자베스 뮤직 샐렐(QEMC)에서 공부하셨는데요. 두 학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매우 다른 학교입니다. 원헌은 악기를 배우면서도 모든 음악 관련 강좌(이론, 청음, 작곡, 역사 등)를 개설한 잘 조직된 대학 체제인 반면, QEMC는 규모는 작아도 매우 높은 수준의 음악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QEMC는 대부분 악기와 연주에 중점을 두고 있고, 멘토로서의 환상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서의 협력, 실연 경험, 실내악 작업 등을 배웁니다.

**아나 추마첸코와 오귀스탱 뒤메이는 어떤 선생님이셨나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환상적인 분들입니다. 아나 추마첸코 선생님과는 열 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삶과 음악에 대한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특히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진정한 롤 모델입니다. 추마첸코 선생님은 전문 연주자로 나아가는 학생이 인간적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음악가로서 가져야 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십니다. 오귀스탱 뒤메이 선생님은 여전히 활발한 연주자이십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예술적 진정성, 지속적인 음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중시하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 달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발매될 쟈 트리오 2집 앨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주제의 프로그램이고 피아노 트리오로 녹음된 적이 없는 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엔 이루어질 다음 협주곡 앨범 작업, 미국 주요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마에스트로 롱 유(위룡余隆)와 함께 할 중국 연주, 호주에서의 첫 투어,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열릴 두 번째 리사이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견뎌내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공연장에 모여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